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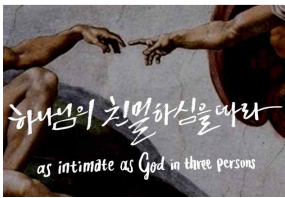


2021 YANG YOUNG HOE

## 열여섯번째 이야기

# 따로 그러나 함께

[ 친밀하심을 따라 ⑩ BEE 중보 5분 띠기도 ]



2021년 BEE Korea “하나님의 친밀하심에 따라” 표어에 따라 해외 사역본부에서는 실천항목으로 BEE 가족들과

함께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작년 연말 BEE 가족들이 작성한 설문지에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기’ 항목에 표시를 한 48명을 중심으로 “BEE 중보기도팀”(이하 중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BEE 가족들이 자신이 속한 테이블 뿐만 아니라 속하지 않은 테이블의 BEE 선교지 및 선교사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BEE 사역을 더 나아가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져 가는 가게 될 것입니다. 일상적인 일들을 수행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출근길에서, 책상 위에서, 작업실에서, 때로는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정해진 자신의 5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목표는 96명의 기도의 용사를 세워 매일 쉬지 않고 8시간 릴레이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처음부터 세워진 계획은 아니었고 기도지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해외 사역본부에 주신 미션이었습니다. 사실은 목표를 세우면서도

불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더 지배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염려와는 달리 중보팀이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부산과 미국과 싱가포르 등과 현지 선교사들까지 합류하며 어느새 목표의 98%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6/11 현재, 94명, 7시간 50분]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껏 중보팀을 기다리셨고, 이 순간을 얼마나 기뻐하고 계시는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순간을 위해 지금껏 중보하신



분들에게는 기도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배달된 기도 제목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분의 짧은 시간이지만 94명의 중보팀이 서로 협력하여 끊어지지 않고 띠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에 기도가 어려울 때 그 사실을 중보팀 단톡에 올리고, 다른 누군가가 그 글을 읽고 대신 기도로 섬기는 헌신을 통해 중보팀이 살아 숨 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BEE 선교지를 두 차례에 걸쳐 끝내고 세 번째 선교지를 돌아가며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염려와는 달리 자연스럽게 각자 안에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아 넘치는 기쁨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힘을 주고 계심을 바라봅니다.

▶기도의 문을 열며..... 서울에서 정월만 전도사(08:00)

전날 저녁 늦게 올라온 기도 제목은 취침 직전에 정독하게 됩니다. 로마서 암송 구절 복습과 더불어 호흡 같은 기도가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55분에 알람이 울립니다. 8시에 맡은 기도는 첫 단추 같아서 매일 언제나 긴장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표와 같습니다. 귀하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이어서 기도하시는 93분의 기도 동역자분들의 간구를 온종일 마음으로 함께 합니다.

▶ 기도 of 문을 닫으며..... 케냐에서 윤경환 선교사 (한국 15:40, 케냐 오전 9:40)

중보기도의 중요성과 그 위력을 알고 있지만 망설임 이유가 현지와의 시차와 매일의 routine이 있는 삶이 아니라서 시간을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으나 그것은 기우였습니다. 돌아가며 금식하며 하는 기도는 수련회를 준비할 때 해보았으나 이렇게 기도해 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5분이란 시간은 짧지만, 이 띠기도의 은혜는 너무나 깊습니다. 중보팀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어쩔 뻔했을까!!

지금은 하루의 우선순위가 5분의 기도시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최적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알람을 해놓고 깨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BEE 가족과의 약속이므로 이 시간을 기쁨으로 사수하고 있습니다. BEE 토요일모임 가족의 반 이상이 대거 참여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서로 나누어짐으로써 하루를 돌파할 수 있음에 기분이 뿌듯한 것은 나만 그런 것인가??



테이블을 통해 부분적으로 알았던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집중기도하면서 더 자세히 알게 됨으로써 사역 전체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집니다. 나만의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매일 나가는 것이 가능하고 할당된 5분 지나도 자유롭게 계속할 수 있어서 선교지에서 자칫 혼자 고립됨을 뛰어넘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하는 정시기도와 토요일모임과 같은 합심 기도, 중보팀과 함께 하는 띠기도로 인해 충만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14일 현재-96명의 기도 용사, 8시간 완료!

[글쓴이 안지민 권사]

남편을 따라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교회 사역에 헌신하게 되었다. 온누리 교회에서 서빙고 OBC와 BEE에서 해외 사역본부를 섬기고 있으며,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솔루션을 개발 관리하는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CEO이다.

[정리 김옥숙 편집: 최 선]


선교지  Indonesia



[전통놀이- 팜나무 오르기 경기  
(Lomba Panjat Pinang)]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1945.8.17)에 모든 지역에서 하는 전통놀이 중의 하나로, 팜나무 꼭대기에 각종 상품을 매달아 놓고 여러 사람이 한 팀을 이루어 정상에 올라가 상품을 차지하는 경기이다. 독립을 위한 노력이 3세기가 넘게 이어졌지만 대부분이 무자비하게 짓밟혀졌고, 마침내 1945년 8월 17일 독립을 맞이하였다. 이날을 맞이하여 마을 곳곳에서 축제가 벌어지는데 팜나무 오르기 경기를 통해 독립하여 한 나라를 세우기까지 기나긴 노력을 기억하며 기념하고 있다.

BEE 소식

1. 2021년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따라” 말씀과 기도와 순종함을 통해 더욱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고 이웃과도 그 친밀함을 나누는 한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 17:21).”
2. 매주 토요일 6:30, 서빙고 비전홀과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BEE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3. 2021 BEE Korea 여름방학 특강 개설! 말씀과 함께하는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전도와 제자 양육2, 고린도전서,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 전달]
4. 7월 3일(토) ‘All & One’이 있습니다. BEE Korea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와 비전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BEE 가족이 서로 감사하며 위로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5. 6월 12일(토), 대면 기도모임 이후 첫 파송식과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6. 기도모임 이후 테이블 별로 곳곳에서 기도와 나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유신 선교사 우간다 사역    정은희 선교사 남수단 사역    이은혜 선교사 에티오피아 사역



미국 류재문, 김혜진 선교사 파송

